

발행 정민하 울리오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최남식 베드로 신부 / 살레시오회

성가정의 원천

계절의 여왕인 5월은 우리 모두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 모범이 바로 예수, 마리아, 요셉이 보여준 성가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정사목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세상의 모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특히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그리고 소년교도소(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를 갈 때마다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이 '얼마나 집에 가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막상 집에 가는 날이 가까워지면 아이들이 설레기도 하지만 걱정이 많아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마냥 기쁘기만 할 것 같았는데, 집에 돌아갔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가정이 없기에 두려움에 쌓인 아이들도 봅니다. 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정한 모습의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을 제 집인 듯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범자(범무부자식)"라고 부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가정도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가진 결점을 배려와 관심,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채워갔기에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 바로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이끄는 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내가 노력한 결과로 얻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 요한 보스코 신부가 새 사제였을 때, 교도소에서 할 일 없이 지내는 청소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에게 자신의 머무는 곳으로 초대하여 친구요, 아버지요,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직한 시민 선량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그의 어머니 맘마 말가리따께서 하셨던 교육이었으며, 그 교육의 원천은 바로 성모님의 보여주셨던 신앙교육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기억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맙시다. 더불어,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새로운 삶으로 옮겨갈 부활의 삶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모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가정이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모성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교정시설 부활 미사



4월 1일(수) 서울구치소 남사, 2일(목) 서울동부구치소 남사, 3일(금) 서울구치소 최고수(사형 확정자), 6일(월)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7일(화)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남사, 서울구치소 여사, 8일(수)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소년학교), 10일(금) 서울남부교도소 훈련원에서 부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더불어, 4월 4일(토) 고봉중고등학교 7명, 8일(수)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5명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자녀로 태어남을 축하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수용자들에게 하느님 안에서 밝은 빛을 찾아가갈 수 있는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4월 13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가 사회사목국장 윤병길 세례자요한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윤병길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본당에 있을 때, 성탄과 부활 미사에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자 한 분이 자기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거창한 예식을 함께 해 주는 것에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라며, “세례 성사 은총의 체험을 떠올리고 더욱더 충만해 지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부활에서 연중 시기를 향해서 가는 동안 그 은총을 되새김하며, 신앙의 핵심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더불어 4월 2일 창립 56주년을 맞이하여, 30년 장기 봉사자 3명, 20년 장기 봉사자 3명, 10년 장기 봉사자 6명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감사장과 감사초 전달식과 신임 대표봉사자의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헌신해 주신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수용자와 출소자,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66차 정기총회



4월 13일(월) 가톨릭회관 2층에서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66차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사, 감사를 비롯한 정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25년 활동 및 결산과 2026년 예산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정사목에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의 마지막 소명

한명선 아퀼리나 /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봉사자

15년 전 처음으로 구치소 봉사의 문을 두드리던 그날, 제 마음속에 있던 미세한 떨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소중한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길을 찾던 중, '교정사목'이라는 단어의 울림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달려가게 된 곳이 구치소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책임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기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 아닐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범죄와 심판이라는 사회적 비판에 짓눌려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수감자분들의 두려움과 슬픔의 감정을 직접 마주했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형제님들"하고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감자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마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봉사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한 마음입니다. 서툴지만 온 마음을 다해 전하는 저의 인사말에 화답해 주시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평범한 인사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수감 생활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구나 안심이 되었습니다. 교정사목 봉사는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에 어떤 희망이 있는지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따뜻한 봉사를 이어가면서 더 많은 수감자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치소에서 미사를 드릴 때마다 수감자분들과 봉사자분들은 다름이 아닌, 같은 인간으로서의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그 도움을 청합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원망에서 시작된 그 기도가, 점차 회개의 마음으로, 그리고 후회와 반성으로 가슴을 치는 신앙의 신비를 신부님의 강론 말씀 중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형제님들을 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부디 저 사랑의 말씀이 형제님들의 마음에 닿아 그들에게 영원한 울림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매주 정성스럽게 봉헌되는 미사를 통해서 존엄성과 회복의 가능성을 느꼈고, 이에 따라 마음속에는 더 큰 희망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때로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죄의 길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도, 어떤 사람에게 국한되지도 않기에,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비록 수감자분들이 과거에 사랑 대신 상처에 익숙해져 이곳에 오게 되었을지라도, 이제는 구치소 안에서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세상에 응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교정사목이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마지막 소명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수감자 한 분, 한 분의 존엄을 품고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싶습니다. 미사를 집전하는 우리 모두의 작은 손길이 수감자분들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구치소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내 발을 씻기신 예수」를 조용히 되뇌어봅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의 손길 필요한 곳에. 먼 훗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를 안아주소서." 아멘.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래, 그랬구나.)



이순영 / 더품다교육공동체

저는 청소년상담원으로 일을 하다가 5년 전부터 프리랜서로 학교와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글을 잘 쓰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친구밖에 없어요. 제일 소중한요. 그래서 뭐든 함께하고 싶어요.”

중2가 된 현진(가명)이를 만나게 된 이유는 바로 절도와 비행이었습니다. 뽀얀 피부에 천진난만한 눈동자를 가진 친구로 평범한 여느 중학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진이는 장애가 있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에게 돌봄에 대한 역할이 많이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돌봄의 역할들을 했을까 싶지만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에 자신과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늘 현진이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원했습니다. 어쩌다 실수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큰소리와 함께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장애가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얹잡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자식은 잘 키운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을힘을 다해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잘 못하면 주변인들에게 손가락질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을 화로 표현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현진이는 어머니에게 욕만 듣게 되었고 잘하던 일들도 스스로 하지 않기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잘해도 나중에는 욕만 먹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살면서 자신이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던 현진이에게 답답한 마음을 들어주고 설 곳이 되어준 존재는 바로 친구였습니다. 자신에게 생긴 어려움을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했고 현진이의 편이 돼주었습니다. 현진이가 느끼기에 부모님보다 나은 존재였고 자신의 인생에 전부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부인 친구들은 학교를 가지 않기도 했고 오토바이를 훔치기도 했으며 차량 털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을 보는 정도였지만 이후에는 자신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현진이가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친구밖에 없어요. 제일 소중한요. 그래서 뭐든 함께 할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나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를 제일 많이 이해해 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그 친구들이에요.”

현진이가 제일 바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좋은 사람이, 좋은 어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눈물이 날 땐 밖으로 나가요.”

소연(가명)이는 작년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만난 친구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3가지 적어보라고 했는데 소연이는 자신이 수학을 잘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다른 친구가 소연이에게 산수 문제를 내며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연이가 틀렸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잘 못하는데? 그게 무슨 장점이야?” 소연이가 소심하게 “아니, 나 잘하는 거 맞는데?”라고 하자 다시 산수 문제를 내줬지만 역시나 또 틀리고 말았습니다. 소연이가 눈물을 흘리다가 멈추더니 제게 밖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와도 되겠냐고 묻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물이 날 땐 밖으로 나가요.” 이유를 물으니, 엄마가 울고 싶을 때 밖에서 눈물 흘리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해 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는 소연이를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을 혼자서 견뎌내고 숨기고 있었구나. 매우 힘들었겠다.

아까 눈물이 났던 이유를 물으니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학교에서 따돌림당했던 일이 떠오르면서 너무 슬펐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소연이는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는 어린 성향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받아주고 다독여 주기는 했지만, 자주 이런 일이 생기자, 아이를 단단하게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에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심리검사를 통해 아이의 성향을 알고 나자 어머니는 “제가 제 아이를 너무 몰아붙이고, 제 식으로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라며 반성하셨습니다.

어른들의 행동에도, 아이들의 행동에도,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이유를 알게 된다면 모를 때보다 그 사람을 훨씬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도 있고, 응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 주고 기다려 주고 응원해 주는 행위는 ‘인생에서 내 편이 생겼다’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안정감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했을 때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조금 더 성장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저는 만나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그럼에도 다시 시작하는 당신에게 '우리가 함께 걷는 길'

김일호 미카엘 / 기쁨과희망은행 본부장

기쁨과희망은행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며 저는 참 많은 분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재기를 꿈꾸며 밤낮없이 고민하고, 또 어떤 분은 좁은 방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안쓰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경외심입니다.

과거 풍족했던 시절의 기억과 지금 곤궁한 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박탈감은 우리가 쉽게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밀린 월세와 채납된 세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현실의 벽 앞에서 깊은 좌절을 경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 안에는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인간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상담실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큰돈보다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판로를 찾기 위해 지인을 찾아다니고, 누군가는 낯선 곳에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며 작은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이 무너질 때 성당을 찾아 조용히 앉아 기도하며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거창한 성공을 이루었을 때보다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에 더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가끔 제가 가지고 있던 묵주를 조심스럽게 건네드리기도 합니다.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힘들 때 잠시 손

에 쥐고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출근길에 조용히 묵주기도를 바치며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대상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주님, 그분들에게 더 큰 위로와 희망을 허락해 주십시오.'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 안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길 믿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은 대상자들이 자기 능력을 스스로 과소평가할 때입니다. 과거의 회계 지식과 사업 경험,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지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시간일 뿐입니다. 겨울의 나무는 겉으로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바라보면 우리 삶에도 때로는 이런 침묵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신앙을 시작하는 마음, 누군가를 가르치며 느끼는 작은 보람,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 그 작은 씨앗들은 이미 삶 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5월이 되면 온 세상이 짙은 초록으로 물들고, 담장 너머로는 붉은 장미가 정열적인 생명력을 뽐내며 피어납니다. 지난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초봄의 번덕스러운 바람을 견뎌낸 줄기 끝에서 마침내 맺힌 결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뿌리를 뚫고 있을 키워온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토록 눈부신 계절의 여왕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그와 비슷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 5월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꽃이 활짝 피어나는 날까지 교정사목 신부님들과 기쁨과희망은행은 언제나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을 응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사 43, 19)

신부님! 저 00예요.

그간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저는 별일 없이 항상 잘 지내고 있어요!

2026년에도 신부님이랑 같이 미사도 드리고, 여러 프로그램에도 함께할 줄 알았는데, 만델라 신부님이 바뀌셔서 아쉬워요. 미리 알았더라면 작별 인사라도 드리는 건데...

그래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뵙고 싶어요!

저는 신부님이 안 계셔도 항상 집회에 잘 참여하고 있어요.

이승민 신부님께서도 항상 저희를 잘 챙겨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매주 집회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어 1등급도 받고, 항상 열심히 했던 수학도 꾸준히 2등급이 나와서 더 열심히 해서 1등급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어는... 3등급은 나오지만, 여전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 신부님의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 되어서 올라와 있길래, 그 기사에 첨부된 신부님 사진을 보고 너무 반갑기도 하고 사진에 나온 날의 미사가 떠올랐습니다.

성탄절 미사로 기억하는데, 아직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아! 그리고 저를 비롯한 소년수들을 위해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누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의 중요성 또한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신부님께서 하신 인터뷰를 보고 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항상 저희를 위해서 발 벗고 뛰어다녀 주시고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또 시간 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승민 신부님께도 항상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직접 말씀드리기 부끄러워서 ㅎㅎ)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

2026. 03. 20.
공00

사회교정사목위원회 6월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2026년 6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행사 알림

- 5월 1일(금) '근로자의 날' 사무실 휴무
- 5월 4일(월), 6일(수)~7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남사
- 5월 7일(목), 12일(화), 14일(목), 19일(화)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2기 인성교육
- 5월 11일(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야외미사 / 공세리성당, 신리성지
- 5월 13일(수) 서품 2년 차 사제 연수 / 성앵베르센터
- 5월 20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5월 27일(수)~6월 2일(화) 서울북부보호관찰소 3차 소년수강명령 교육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 후원 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02)921-5094 / 교정사목 휴대전화 010-3732-5093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